

‘극한 직업’ 대학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171명 서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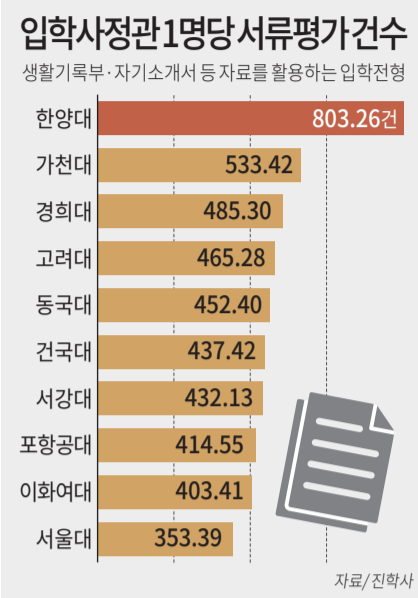
1명당 평가건수 최대 803건 ‘한양대’ 전체 사정관의 86.5% ‘위촉사정관’ “공정성 위해 입학사정관 확보 필요”

대학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171명의 서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1명이 최대 803명의 서류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사정관 가운데 전임 사정관 비율도 13.1%에 그쳐 적정 규모의 전문 입학사정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171명 서류 평가

5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산업대, 사이버대, 과학기술원 등을 제외한 전국 165개 대학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총 8282명이었다. 해당 대학의 선발 인원은 8만6715명으로, 그중 서류 평가 대상 인원은 64



만 6815명이었다.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사정관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71명 정도를 평가한 셈이다.

입학사정관 8282명 중 입학사정업무

를 주로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은 1114명이다. 각 대학에서는 전임사정관 외에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사정관을 운영하는데 이들이 전체 사정관의 86.5%를 차지한다. 전임, 위촉사정관 별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임 사정관이 55만5238건, 위촉사정관이 86만6323건을 평가했다.

사정관별로 구분해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임사정관은 1인당 498명을 평가했지만 위촉사정관은 121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로 1인당 무려 803명의 서류를 검토했다. 그 뒤를 이어 ▲가천대(533명) ▲경희대(485명) ▲고려대(465명) 등의 순으로 1명당 평가 건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평가자 1인당 평가 건수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천(224명) ▲경기

(181명) ▲대구(160명) ▲광주(157명) 등의 순으로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명당 30분 평가... “학종 내실화 위해 사정관 처우 개선해야”

학생당 평가 시간을 보면, 최소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대입일정이 조정됐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보통 수시 원서접수는 9월에 실시해 대학에 따라 짧게는 40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의 기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평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학사정관 1인당 803명의 서류를 평가했던 한양대의 경우,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이라고 할 때 1일 기준 약 17명의 학생을 평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지원자 1명당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중

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대 21.23분’이라는 수치와도 유사한 결과다.

소속 대학에 맞는 인재 선발과 학생 부중합전형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입학사정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사정관 출신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는 입학사정관 처우 개선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불공정 논란이 심화하자 정시 확대를 골자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인천대, ‘산업 AI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024년까지 3년간 사업 공동수행 제조업 고도화로 새 부가가치 창출

인천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21년 신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을 주관기관으로 포항공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2019년부터 2년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인천대와 경기대가 신규로 참여해

7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산업인공지능이란 제조산업과 제조 관련 전후방 서비스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일컫는다.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사업’은 KETI가 운영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이 산업인공지능에 특화된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교육 위한 산업데이터 교육 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해커톤 대회 개최 ▲산업 인공지능 교과목 개발 등 통해 산업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반도체와 물류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브이엠에스솔루션스, 레코그아이, 대주기계, 모베란, 미디어젠 등의 기업체와 협력해 제조업 전문 AI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문체부, 인문진흥심의회 구성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인문진흥심의회)’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인문진흥심의회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제3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공동 지명한 서경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명예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인문학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9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신대 진로취업본부와 (주)씨티티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과 우수기업 감사패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한신대, 씨티티디와 재학생 취업 업무협약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기업 감사패 전달

한신대학교 진로취업본부는 최근 ㈜씨티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취업 협력 우수기업 감사패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상호 협력해 재학생 취업과 IPP(장기현장실습),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협력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씨티티디는 2018년부터 한신대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과 실습기업 협

약을 체결하고, 한신대 4학년 재학생을 선발해 IPP(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물론 대부분의 학생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진로취업 협력 기업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신대 이미숙 진로취업본부장, 손성달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교수와 ㈜씨티티디 이경연 대표이사, 신창세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한신대 IPP(장기현장실습) 실습생들과 실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인 여러 졸업생도 함께 했다.

/이현진 기자

연세대 생물학 수업에 VR콘텐츠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이 2021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일반생물학 실험 수업에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도입했다.

앞서 실감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VR 자체가 수업목적이 아닌 완전한 도구로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수강생은 이공계열 학부 1학년생으로, 단백질 정량, 효소활성 측정, 체세포분열 등 3개 기초실험 콘텐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전년도에 10건의 콘텐츠가 제작돼 품질 고도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올해 10건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 책임자인 양성욱 생명시스템대학 교수는 “학생들이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실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VR 콘텐츠 활용을 점차 확대해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심동현 세종대 학생, 국제저널에 논문 게재

‘센서’에 제 1저자로 논문 등재

세종대학교 지능기전공학부 심동현 학생(사진)이 SCI급 국제저널인 ‘센서(Sensors)’에 제1저자로 논문을 등재했다. 저널 센서는 JCR의 ‘계측 및 계측장비’ 분류에서 64개 저널 중 15위로 상위 23%에 해당하는 SCI급 국제저널이다.

5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조민정 연구원과 지능기전공학부 백운철 연구원, 샤리프 연구원, 박성훈 교수,



김형석 교수와 함께 연구했다.

논문 주제는 ‘몰입감 있는 가상현실(VR) 상호작용을 위한 저지연 햅틱 오픈 장갑 컨트롤러’이다. 기존 장갑형 VR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손 크기에 따라 VR 경험이 크게 차이 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람들의 관절 구조와 자체 개발 필터를 사용해 사용자별 손 크기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장갑형 VR 컨트롤러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현진 기자

상명대, 재학생 ‘취업역량 증진 과정’ 진행

컴퓨터 활용 능력 강화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재학생 컴퓨터 활용 능력배양을 위한 ‘취업역량 증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재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강화해 취업경쟁력과 취업 이후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ITQ(엑셀)’ 과정이

운영되고, 5일부터 23일까지는 GTQ(포토샵) 1급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50여 명으로 총 100여 명의 학생이 과정을 이수한다.

이밖에도 상명대는 이달 20일부터 10주 과정으로 기업 실무자 출신 취업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취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SM-Re-Spec-TF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